전문의약품
분류번호:114

소염 · 진통 · 관절염 치료제

카나펜 정

{아세클로페낙}

Canafen tab.

[원료약품 및 분량] 이 약 1정 중
아세클로페낙[EP] ····· 10.1mg
[성상] 흰색의 원형 코팅 정제
[효능 · 효과]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및 견갑상완염의 관절주위염, 치통, 외상 후 염증기능 염증, 요통, 좌골통, 비관절성 류머티즘으로 인한 통증
[용법 · 용량]
○ 성인 : 아세클로페낙으로서 1회 100 mg을 12시간마다 1일 2회 복용한다.
○ 간질환 환자 : 초기 용량으로 1일 100 mg을 투여한다.
이 약은 씹거나 부수지 말고 그대로 복용한다. 츄잉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매일 세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이나 다른 해열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 위장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

2) 심혈관계 위험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 빈도,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투여 기간에 따라 이러한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심혈관계 질환 또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 있는 환자에서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의사로부터 처방받지 않은 환자에서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환자는 이러한 심혈관계 중상의 발현에 대하여 상호적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이는 심혈관계의 질환의 징후의 증상 및 이러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취할 처치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3) 위장관계 위험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또는 위장관의 출혈, 궤양 및 천공을 포함한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투여 기간 동안에 경고 증상 없이 발생할 수 있다. 고령자는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투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으나 단기 투여 시 이러한 위험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위장관계 궤양 또는 출혈의 증상 및 징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추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완전히 배제될 때까지 투여 중단하는 것도 치료법이 될 수 있다.
고위험군의 환자에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관련 없는 다른 대체 치료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활동성 소화성궤양/출혈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 또는 같은 계열의 일부 약물(다클로페낙)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3) 아스피린이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COX-2 억제제포함)에 대하여 천식, 두드러기 또는 알레르기 반응 병력이 있는 환자 (이러한 환자에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후 치명적인 중증의 아나필락시스모양 반응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4) 아스피린 또는 다른 프로스타글란딘 합성효소 저해작용을 갖는 약물에 의해 천식 위험의 증가, 두드러기 또는 급성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천식 환자
5)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
6) 중증 심부전 환자
7) 중증 신장애 환자
8) 중증 간장애 환자
9) 과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치료로 위장관출혈 또는 천공의 병력이 있는 환자
10) 임신 말기의 임부
11) 수유부
12) 크론병 또는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
13) 출혈이 있거나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환자
14)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 이러한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신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체액저류 또는 심부전 환자
3) 이노제 또는 ACE억제제를 투여 중인 환자
4) 외과적 처치 후에 회복기에 있는 환자
5) 고령자
6) 기관지 천식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기관지 경련이 보고되었다.)
7) 프로피린 대사의 선천적 장애 환자
8) 고혈압 환자
9) 간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10) 과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장기투여로 인한 소화관 궤양이 있는 환자로서, 이 약의 심기투여가 필요하며 미소프로스톨 등으로 소화성궤양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환자(미소프로스톨에 의한 치료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소화성궤양도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하는 중 충분히 경과를 관찰한다.)
11) 임신 초기, 중기의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
12) 한을고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

4. 이상반응
가장 흔하게 위장관계 이상반응, 어지러움, 간효소 수치 이상이 보고되었다.
드물게 가려움, 발진을 포함한 피부 이상반응
1) 혈액 및 림프계 : 드물게 빈혈, 매우 드물게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감소증, 호중구 감소증, 용혈성빈혈, 재생불량성빈혈, 무과립구증
2) 과민반응 : 드물게 쇼크, 아나필락시반응
3) 대사 : 매우 드물게 고칼륨혈증
4) 정신신경계 : 자주 어지러움 매우 드물게 우울, 이상한 꿈, 불면
5) 감각기계 : 드물게 시각장애, 시신경염 매우 드물게 감각이상, 진전, 졸음, 두통, 미각장애, 옥경적, 발열 또는 방향감각장애, 착란, 환각, 이명, 권태
6) 순환기계 : 매우 드물게 심계항진, 얼굴홍조가 나타날 수 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관련하여 고혈압, 심부전 등이 보고되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특히 고용량 및 장기사용)에 대한 암상시험의 역학 데이터는 통택혈전증(이를 들어 동맥경화 또는 뇌졸증)의 위험을 증가 시킬 수 있다.
7) 호흡기계 : 드물게 호흡곤란 매우 드물게 기관지경련, 천식증
8) 소화기계 : 가장 흔히 위장관계 이상반응에 관련된다. 소화성궤양, 천공 또는 위장출혈 등이 나타날 때로는 심각한 경우도 있다. 고령자에서 더 심각하다. 자주 소화불량, 복통, 구역, 설사 때때로 복부팽만감, 위염, 변비, 구토, 암페잉 드물게 속쓰렉, 매우 드물게 구내염, 토혈, 혀장염, 대장염의 악화, 크론병
9) 간장 : 매우 드물게 간염, 황달, AST, ALT, ALP의 상승
10) 피부 : 때때로 가려움, 발진, 발적, 피부염, 두드러기 드물게 얼굴부종 매우 드물게 자색반, 수포성피부염,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및 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을 포함하는 수포성 반응이 나타났다. 광민감반응, 탈모
11) 신장 : 신부전, 신증후군
12) 국소반응 : 부종, 피로, 다리경련
13) 기타 : 자주 간효소상승, 때때로 혈중 요소 또는 크레아티닌 상승, 체중증가, 양는 현상의 증가,무갈증아래경특히 천식병력자으로서의 및 혼합갈랙초직병(MCTD)에 걸린 자가 발생할 수 있다.

5. 일반적 주의
1) 이 약을 투여하기 전에 이 약 및 다른 대체 치료법의 잠재적인 위험성과 유익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약은 각 환자의 치료 목적과 일치하도록 가능한 최단 기간동안 최소 유효용량으로 투여한다.
2) 위장관계 이상반응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계약성 질환 또는 위장관 출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시 극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화성 궤양 질환 및/또는 위장관 출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이러한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 비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 시 위장관 출혈의 발생위험이 10배 이상 증가한다. 위장관계 출혈을 증가시키는 다른 위험인자로는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항응고제 병용,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장기 사용 알코올 섭취, 고령, 좌약한 건강상태 등이 있다. 지병약인 위장관계 이상반응에 대한 위험성 보다 더 낮분포로 고령자 및 위장자에 대한 것이므로, 이러한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 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 고혈압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고혈압을 일으키거나, 기존의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혈관계 위험사례의 발생률이 증가될 수도 있다. 타이지드계 이뇨제 또는 루프계 이뇨제를 복용중인 환자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복용시 이들 요법에 대한 반응이 감소될 수 있다.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고혈압 환자에서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이 약의 투여 초기와 투여기간 동안에 혈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4) 울혈심부전 및 부종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는 일부 환자에서 체액 저류 및 부종이 관찰되었다. 이 약은 체액저류 또는 심부전이 있는 환자에서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5)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장기간 복용시 신장유두괴사나 기타 신장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신혈류를 유지하는데 프로스타글란딘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심부전 환자, 신부전 환자, 간부전 환자, 이뇨제나 ACE억제제를 투여 중인 환자, 고령자 등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투약을 중단하면 대부분 치료 전 상태로 회복된다.
6) 진행된 신질환 : 진행된 신질환 환자에서 이 약 사용에 대한 명확한 임상 시험은 실시된 바 없다. 따라서, 진행된 신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이 약의 투여가 적극시 않는다. 따라서, 진행된 신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이 약의 투여가 적극시 않는다.
7)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의한 혈액학 검사 : 간부전(일부는 치명적임)을 포함한 중증의 간 관련 이상반응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간기능 이상을 암시하는 증상 및/또는 징후가 있는 환자 또는 간기능 시험 결과

비정상인 환자에 있어서는 투여기간 동안 주의깊게 간기능의 악화 여부를 관찰하고, 간장환과 관련된 일상 증상이나 전신적인 징후(예 : 호산구증가증, 발진)가 발현되는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한다.
8)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투여로 빈혈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의 장기 투여에 의해 빈혈의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헤모글로빈치 또는 헤마토크리트치 검사를 해야 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며, 일부 환자에서는 출혈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스피린과 달리 이 약의 혈소판 기능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고 지속기간이 짧으며 가역적이다. 응고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혈소판 기능 변경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9) 안생질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장기간 투여하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전혈구 검사(CBC) 및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간질환 또는 신질환과 관련된 임상증상이나 전신적인 징후(예 : 호산구증가증, 발진)가 발현되거나 비정상적인 간기능 검사 또는 신기능 검사 결과가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2) 약물요법 이외의 치료법도 고려한다.
10) 급성질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급성염증, 통증 및 발열의 정도를 고려하여 투여한다.
(2) 원칙적으로 동일한 약물의 장기투여는 피한다.
(3) 원인요법이 있으면 그것을 실시한다.
11) 아나필락시스모양 반응 :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마찬가지로 아나필락시스모양 반응은 약물에 노출된 경험이 없는 환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과민성 혈청 증상은 아스피린이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 후 비측 출혈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거나 동일 질환적으로 치명적인 증증의 기관지 경련을 나타나는 천식 환자에게 전형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아나필락시스모양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피부반응 : 이 약은 박탈피부염,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및 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 같은 중대한 피부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들 중대한 이상반응은 경고 증상 없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이상반응은 투여 초기 1개월 이내에 발생한다. 환자는 중대한 피부 발현 증상 및 중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피부 발진 또는 다른 과민반응의 최초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날 때 약물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13) 천식 환자 중 일부는 아스피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과 관련해서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경우 천식악화 등 또는 중증의 기관지경련과 관련된 반응 있다.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환자에게 아스피린을 투여하는 경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간의 기관지경련을 포함하는 교차반응이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이 약은 이러한 아스피린 민감성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하며, 천식 환자에게는 주의깊게 사용하여야 한다.
14) 이 약은 코르티코이드 제제를 대체하거나 코르티코이드 갈등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로 사용할 수 없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갑작스러운 투여 중단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반응성 질환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장기간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복용해 온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서히 용량을 감소 시켜야 한다.
15) 이 약의 약리학적 특성상 염증의 다른 증상과 징후를 불현듯성화하여 등증성 및 비감염성 조건하에서 감염성 합병증의 진단을 지연시킬 수 있다.
16) 어지러움 혹은 기타 중추신경계의 장애를 줄 수 있으므로 운전을 하거나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일을 해서는 안되며, 특별한 수익가 필요한 환경을 피한다.
17) 여성의 임신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임신을 계획중인 여성은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불임여성으로 이 약을 투여받는 여성에서 임신 포기 복용하는 여성에서 임신 포기 불임이 보고되었다. 임신이 어렵거나 불임치료를 하고 있는 여성은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 소염진통제에 의한 치료는 원인요법이 아닌 대증요법임에 유의한다.

6. 상호작용
1) 흡사기 다른 약물 특히 다파신, 항응고제, 경구용 당뇨병용제제 또는 이노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2) ACE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길항제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의해 ACE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길항제의 항고혈압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이 약과 ACE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길항제를 병용투여하는 경우 이러한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아스피린 : 아스피린과의 병용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사용과 관련된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반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일관성 증거는 없다.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과 아스피린의 병용에 의해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발생 위험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두 약물의 병용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4) 이노제
(1) 임상시험 및 시판후 조사 결과, 이 약의 신장에서의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에 의해 일부 환자에서 부로세미드 및 티아지드계 이뇨제의 나트륨뇨배설 효과가 감소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들 약물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병용투여하는 동안 신부전 징후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2) 칼륨보존이뇨제와 병용시 칼륨농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혈중 칼륨농도를 관찰해야 한다. 혈중칼륨농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진 바 없으나, 다른 이노제와의 상호작용은 배제할 수 없다.
5) 리튬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신장에서의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에 의해 혈청 리튬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리튬의 신청소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리튬의 병용 투여 시 리튬의 독성 징후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6) 메토트렉세이트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의 병용투여로 신세뇨관에서 메토트렉세이트의 배설이 지연되어 치명적인 메토트렉세이트의 혈액학적 독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항암요법으로 사용하는 고용량(15 mg/주 이상)의 메토트렉세이트와는 병용투여하지 않으며, 저용량의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투여 시 신중히 주어져야 한다.
7) 쿠마린계 항응고제(와파린 등) : 위장관계 출혈에 대하여 와프파린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상승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두 약물을 함께 사용하는 환자는 단독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비해 중증의 위장관계 출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8)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선택적 COX-2억제제 포함) 와 병용할 경우 이상반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병용하지 않는다.
9) 이 약은 CYP2C9에 의해 대사되므로 페니토인, 시메티딘, 미코나졸, 설파페나졸, 아미오다론, 플루타미드, 페닐부타존과 약동학적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다.
10) 강심배당체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사구체 여과율을 감소시키고 배당체의 혈중 농도를 증가시켜 심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다.
11) 메페프리스톤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메페프리스톤의 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메페프리스톤 복용 후 8~12일 동안 투여해서는 안된다.
12) 퀴놀론계 항생제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병용 투여 시 경련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동물실험 데이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13) 알렐소전제 및 타크로limus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병용투여 시 신독성의 위험이 증가 할 수 있다.
14) 사클로스포린 및 타크로리무스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병용투여로 신독성의 위험이 증가 할 수 있다.
15) 지도부딘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병용 투여 시 혈액학적 독성이 증가할 수 있다. HIV(+) 혈우병 환자에게 지도부딘과 이부프로펜을 병용투여 했을 경우 혈관절증과 혈종의 발생률 위험이 증가했다는 증거가 있다.
16) 당뇨병용제 : 디클로페낙은 경구 혈당강하제와 병용시 경구 혈당강하제와의 임상적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임상결과가 있었으나, 이 약의 치료중에 처방당과 고혈당 효과가 드물게 보고되었으므로, 처혈당약의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17) 코르티코스테로이드 : 이 약과 병용 시 위장관 궤양도 출혈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이 약을 임부에게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마찬가지로 임신 말기에 이 약을 투여 시 태아의 동맥관 폐쇄 증가 가능성으로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이나 임신 초기 및 중기의 임부에게 용량 및 사용기간을 최소한으로 신중히 투여하여, 임신말기에서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투여 하지 않는다.
2)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로는 암부에 대한 안전성은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다. 랫트에 대한 실험에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저해하는 다른 약물과 마찬가지로 난산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고, 분만을 지연시키며 태지의 생존율을 감소시켰다.
3)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로는 수유부에 대한 안전성은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이 약이 사람의 모유로 분비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많은 약물들이 모유 중으로 이행됨 분만 이내에 심각한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유부에 대한 약물 투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유을 중단하거나 약물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 대해서는 정해진 복용량이나 적응증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소아 및 청소년에서 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고령자에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대한 이상반응 특히, 위장관 출혈과 천공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그러므로, 대부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마찬가지로 고령자에게 이 약을 투여 시 주의한다.

10. 과량투여 시 처치
과량복용으로 인한 전형적인 증상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실수로 과량 복용시에는 환자 또는 증상에 따라 처치하도록 해야 하며, 위장관 자극, 전혈압, 호흡저하, 경련 등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11.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유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한다.

※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 기밀용기, 실온보관(1~30℃), 제조일로부터 36개월
※ 포장단위 : 자사포장단위
※ 제품문의처 : 02) 3485 ~ 0434
※ 본 의약품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필한 제품이며, 만약 구입시 사용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변질, 변색 또는 오손된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입처를 통하여 교환하여 드립니다.
※ 전문의 최종개정연월일 : 2010.10.04
※ 이 제품 설명서 작성(개정)연월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http://nedrug.kfda.go.kr 의 첫화면상을 참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조자 :

한 국 콜 마(주)

세종특별자치시 전덕면 산단길 245